

등록금 동결까지 했는데...국고 사업 탈락 대학 '겹시름'

정부가 올 들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공모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대학 명단을 줄줄이 발표하면서 광주·전남 대학가에 희비(喜悲)의 상곡선이 극명하게 그려지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매년 줄어드는 입학생 수,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재정지원 사업 수주에 총력을 쏟아왔다는 점에서 '탈락'한 대학들의 충격파는 클 수밖에 없다.

◇희비 극명...=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재정지원사업은 크게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국립대 혁신지원사업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산업계 관련 대학평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 등이 꼽힌다.

우선,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금(735억원) 뿐 아니라 '잘 가르치는 대학'이라는 수식어를 학교명 앞에 붙일 수 있는 점 때문에 광주·전남을 비롯,

대부분의 대학들이 '총력전'을 벌여왔다. 올해 10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는 사업 계획을 마련한 것도 대학들의 선호도를 반영했다는 게 교육부측 설명이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올 해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전남대, 목포대와 호남대, 광주여대 등은 탈락의 쓴 맛을 보고 충격에 휩싸인 상태다.

남부대는 특히 최종 선정 대학을 가리기 위한 2배수(20개교) 명단에 포함됐지만 마지막 심의 과정에서 아쉽게 제외됐다. 조선대·순천대·동신대의 경우 이미 2014~2016년 선정된 바 있다.

국립대 혁신지원사업(PoINT)도 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년도에 건립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210억원)했지만 목포대만 선정됐고 전남대와 순천대는 명단에서 빠졌다. 전남대와 순천대는 지난해까지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

기업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을 뽑는 '산업계 관련 대학평가'에서는 목포대와 호남대가 평가에 참여하고도 최우수 평가를 받지 못했다.

산업계 관련 대학평가는 각 대학의 배출 인재들이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산업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얼마나 갖췄는지를 산업계 부처장이 평가하는 사업이다.

경제 5단체가 선정된 대학 졸업생이 입사지원할 경우 회원 기업들이 인센티브를 주도록 권고한다는 점에서 선정된 전남대·조선대·동신대는 대학생 취업난 해소

광주·전남 대학가 정부지원사업 발표 희비

'대학역량강화사업' 주요 대학 모두 탈락

'산학협력대학' 전남대·동신대 등 4곳 승선

'총장 공석 사태' 광주교대 신청서도 못내

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 스스로 '올해 최대 규모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라고 밝힌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도 참여 대학이 엇갈린다.

교육부가 327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포함된 지역 대학은 동신대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등 4개 일반대학만 이름을 올렸다. 국립대인 목포대와 순천대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외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추진하는 '2017 전통시장·대학협력사

업 전문기관' 사업도 광주여대는 지원 대상학교에 이름을 올린 반면, 호남대는 광주 서부시장의 발전 방안을 담은 계획서를 냈다가 떨어졌다. 광주여대는 1억47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우산매일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총장 부재...학생 피해 현실화(??) 우려=광주교육대의 경우 주요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않으면서 '총장 공석 사태'로 인한 부작용 아니냐는 우려가 교육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교육대는 올 초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뿐 아니라 '국립대 혁신지원사업'에서도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교육대는 지난 2015년부터 2년 연속 '국립대 혁신지원사업'에 포함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다. 총장이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지원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하는 점

을 감안, 총장 부재 사태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선대,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에 선정, 올 해 추진기로 한 '미래사회융합대학' 설립·운영도 주목할만하다.

지난해 이화여대 학교·학생 간 갈등을 불러온 '직장인 대상 평생교육 단과대학'(평단) 운영 사업과 비슷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대학 내부에서는 학교 구성원 간의견 수렴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여부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학교측은 관련 사업을 위해 '휴먼융합서비스학부'와 'ICT 융합학부'에 140명의 정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유전공학부 정원 감축이 이뤄지는 만큼 설명회 등을 거쳐 관련 교수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각 학교는 운영 유형별로 25억원 이내의 지원을 받게 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5·18 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다양한 5·18 관련 교육·체험활동을 벌인다. 지난해 장회교 교육감이 광주대동고에서 진행한 5·18 계기수업 장면.



'5·18레드페스타(RED FESTA)' 행사와 행사 기간 마련된 5·18 바로알기 체험코너. <광주시교육청 제공>

청소년도 부르는 '임 행진곡'...18~27일 '5·18 기념주간'

교육청·전남대 기념행사 다채

5·18 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교육계를 중심으로 5월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움직임이 펼쳐진다.

전남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전남대 인문대에서 5·18 연구소를 중심으로 '오월후(後)', '87년 체제'와 30년 -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연구소는 ▲5·18항쟁 진상규명과 쟁점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민주주의의 확장 ▲5·18과 공유, 공동체의 미래 ▲촛불과 언론개혁 등 세부 주제로 나눠 5·18연구와 남은 과제들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5·18항쟁 37주년, 1987년 6월 항쟁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대의 정치적 과제와 지향에 아할 방향 등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광주교육청도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5·18 민주화운동 교육을 강화한다.

당장, 5월 18~27일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 주간'으로 정해 모든 학교가 2시간 이상 5·18 계기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기념 주간에는 반드시 기념식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한다.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제목의 인정 교과서와 '달마다 만드는 민주시민 이야기', '오월 오색이야기' 등 책자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토록 했다.

5·18 당시 희생된 학생들이 다녔던 15개 학교들은 학교별 추모행사 등을 진행한다. 교육청은 앞서 지난 2015년 '5월, 청소년을 기억하다'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 보

급한 바 있다.

자유학기제와 연계,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체험 및 기획 전시 관람',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금남로' 프로그램 참여 등을 권장하고 '5·18레드페스타(RED FESTA)', '5·18전국고등학생토론회' 등의 참여 기록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예정이다.

전국교직원노조 광주지부도 '촛불로 잇는 오월, 우리가 만들어가는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교육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전교조는 우선,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교육활동 도움자료'를 제작 보급하는 한편,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오월길 역사기행'을 진행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학교별 5·18 학생 희생자 추모사업

▲광주효덕초 희생자(전재수) 추모 공간(삼행시 매달기·추모 우체통 만들기·기념 식수) 꾸미기

▲전남중 희생자(방광범) 추모 주먹밥 나누기 행사

▲서광중 희생자(김명숙) 추모 식수(백묵편)

▲송의중 희생자(박창원) 추모 글짓기 대회·추모식

▲조대부중 희생자(김부영) 모 참배 및 추모 식수

▲조대부고 희생자(박성용) 추모비 주변 야생화 식재

▲대동고 희생자(전영진) 추모비 주변 휴식 공간 조성 및 5.18 문예공모전 개최

▲송원여상 희생자(박현숙) 추모 주먹밥 만들기

교육단신

전남대 여수캠 100주년 음악회

전남대는 오는 10일 오후 7시30분 여수 GS칼텍스 예술마루 대극장에서 '여수캠서 개교100주년 기념음악회'를 연다.

전남대 국악학과 학생·동문이 꾸미는 흥겨운 국악 무대와 전남대 오케스트라(지휘 박인욱) 연주 아래 바이올린협주, 테너, 바리톤의 아리아와 합창 공연 등이 이어진다.

내일 전남 학생과학발명대회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10일 오전 전남과학교육원에서 초·중·고교 158개팀이 참여한 가운데 '제 39회 전남도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를 연다.

'스승의 날' 법륜스님 특강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15일 오후 7시 광주시교육연수원에서 법륜 스님을 초청, '행복 토크'를 주제로 특강을 연다.

법륜스님은 1988년 정토회를 설립하고 정토회 지도법사와 평화재단 이사장을 맡아왔다.

26일 호남권 대학 대입설명회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광주시 북구 오치동 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대입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남대와 조선대, 광주교대, 전북대, 원광대, 광주대, 동신대 등 호남권 11개 대학 입학담당자들이 나서 특성화학과를 소개하고 전형 요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Step 1. 방수정리
Step 2. 단열미스카넷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옵션에서 선택된 컬러그래프에서 만나보세요

아파트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장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터너디자이너 잔 멘디니외의 콜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48189호

2중안벽 단열방수 방수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IPALC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010-6603-040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치평동 상가 매매

- 상무나이트 옆 수림상가
- 10층 중 10층 795m²(250평)
- 임대가(5000만/350만)
- 감정/시세 8억 7700만
- 급매 7억 7000만

봉선동 아파트 매매

- 봉선동 포스코 아파트
- 17층 111m²(33평)
- 교육환경 최상
- 시세 4억 3000만
- 매매 4억 1500만

수기동 오피스텔 매매

- 수기동 23-2번지 제일오피스텔
- 19층 95m²(28평)
- 임대중(400만/월 47만)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5900만

문의 **010-9203-6161**